



김제시, 영농철 맞아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3일 영농철을 맞아 농촌 고령화 등에 따른 인력 수급 저하로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일손 돕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재배 작기에 알맞은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농촌 일손돕기를 대대적으로 시작했다.

현재 모든 농촌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가 인건비(최저시급) 인상으로 농촌지역의 극심한 인력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이로 인해 영농 차질 등 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되어 농가들의 근심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업기술센터 박금남 소장과 농촌지원과 직원 15명은 일손이 부족해 밭을 동동거리던 용지면 복숭아 재배 농가를 방문, 복숭아 알 숙기 작업을 도왔고, 농업인이 현재 고민하는 예로사항과 문제점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의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민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 농가소득을 위해 일손이 필요한 농업 현장을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죽향동 주민자치위, 행사장 환경정화 나서

남원 죽향동 주민자치위원회(13기, 위원장 조외남)는 지난 11일, 춘향제 행사장 일원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린 전야제 행사장 주변 쓰레기를 살피기 치우고 정리하는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출범 당시부터 "깨끗한 죽향동 만들기"를 위원회 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그동안 주민의 식문화와 자를 청소 분위기 확산을 위해 분기 1회 이상 '굿모닝, 플린데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공동 연대 협력사업으로 주거환경 취약계층 집 치위 주기 행사도 계획 중이다.

특히, 춘향제 행사장이 모두 죽향동 구역인 관계로 에어쇼 및 불꽃놀이 소음민원과 차량 통제 등으로 불편을 겪게 될 주민들에게 제외회 춘향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솔선하여 불편을 감수하며 집중적인 홍보활동으로 민원 사전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청하면 복지기동대, 전동교체 봉사

김제시 청하면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동대(대장 유월영)가 지난 10일 독거노인 1세대에 주거환경 개선 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노후되고 고장난 전등을 고효율 LED 전등으로 교체해 주며 안부도 확인하는 등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기동대원이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청하 성남마을의 서모 어르신은 "어두웠던 조명을 LED 전등으로 바꾸니 실내가 환해지고 전기료도 절감될 수 있고 깔끔한 환경이 되어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양미영 청하면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돌보고 보살피는 역할을 잘해 주시는 기동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금구면, 영농철 농촌 일손 돕기 나서

김제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9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에 나섰다.

이날 금구면 직원들은 농번기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숭아 농가를 방문해 미숙한 손잡이지만 과실 숙기 및 잡초 제거 등 농가 일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도움을 받은 농가주는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은데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금구면 직원들이 내일처럼 열심히 일해 주니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워했다.

두일근 금구면장은 "농촌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영농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설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설천면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라제통문 회전교차로 일원에 잔디를 심어 경관을 정비했다. (사진 왼쪽) 무풍면 생활개선회와 한국여성농업인협회 관계자들, 무풍면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함께 덕산재 유희부지 200㎡ 규모에 영산홍과 수국 등 꽃을 심었다.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예쁘고 푸르게!

무주군 무풍·설천·부남면 주민들, 꽃 심고 마을 가꾸기 나서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각 지역 주민들이 마을 가꾸기에 앞장서 눈길을 끈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풍면 생활개선회(회장 송현옥)와 한국여성농업인협회(회장 김춘영) 관계자들, 무풍면행정복지센터(면장 김성욱) 직원들이 함께 덕산재 유희부지 200㎡ 규모에 영산홍과 수국 등 꽃을 심었다. 임병호 계부마을 이장은 "꽃은 지역이 함께 추진하는 꽃밭 조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심은 것"이라며 "사파의 고장 무풍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방문객들에게 기분 좋은 기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설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설천면행정복지센터(면장 이지영) 직원들도 라제통문 회전교차로 일원에 잔디를 심어 경관을 정비했다. 박종용 설천면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장은 "설천이 무주 관광의 중심이라는 생각으로 구천동 33경 중 제1경인 라제통문 주변에 잔디를 심게 됐다"며 "무주방문의 해 성공도 설천면이 이끈다는 생각으로 지역을 예쁘고 푸르게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남면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부남면행정복지센터(면장 박금규) 직원들이 함께 대소마을 대공정 공원에 '네모투' 4백 주를 심고 잡초 제거를 하는 등 활동을 벌였다. 정란화 부남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내 집에 손님이 찾아오신다는 마음으로 꽃도 심고 마을 곳곳 주변 정리도 하고 있다"며 "작은 준비와 실천이 무주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힘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학부모협의회 정기총회... 정유미 신임 회장 선출

부회장에 김도경·이승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3일 5층 회의실에서 전북학부모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어 임원진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총무 1명을 선출했다.

특히 제2대 전북학부모협의회회장으로 정유미 남원학부모협의회회장을 뽑았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초대 전북학부모협의회회장을 지낸 정 회장은 지난 1년간 전북학부모협의회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었고, 전북학부모한마당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서연연에 성공했다.

정 회장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가 있다"면서 "전북학부모를 대표해 학부모들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부회장은 김도경 순창군 학부모협의회회장과 이승연 부안군 학부모협의회회장이, 감사는 김주영 완주군 학부모협의회회장이, 총무에는 유은진 김제시 학부모협의회회장이 각각 선출됐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전북학부모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이승연 부회장, 김도경 부회장, 서거석 교육감, 정유미 회장, 김주영 감사, 유은진 총무)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이뤄내기 어렵다"면서 "교육이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의 3주체인 학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학부모협의회가 지역별 학부모회 연대를 통해 교육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전북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돼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화합·소통... 전북자치도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1일 완주 모악산 축구장에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회장 이상열)와 전주건축사회(회장 박광성)가 주최·주관한 것으로 김광수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과 윤수봉 도의원, 송상재 전북특별자치도 노조위원장 등을 비롯한 600여 명의 도내 건축인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선수단 선수로 개회식을 갖고, 축구, 계주, 줄다리기 등의 운동경기와 레크리에이션 등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교육청, 14개 시군, 전북개발공사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회가 한마음 체육대회 참여해 상



호간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건축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했다. /이만호 기자

정읍 신태인농협, 어버이날 고객사랑 행사 추진

정읍 신태인농협(조합장 황희중)은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농협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케이션 달아주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용고객에게 준비한 케이션과 함께 떡을 전달하는 고객사랑 행사와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사기 유형별 대처방안에 대한 예방교육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날 황희중 조합장은 "항상 신태인농협을 이용해주시는 조합원님과 이용고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란다"는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이용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금융안전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김대환 기자

Table with columns for '전주매일' (Jeonju Maeil) newspaper detail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 list of regional offices with phone numbers.



우석대, 제2기 Win-Win 직업평가 마스터 발족

우석대학교 재할상당학과는 4학년과 대학원생 12명으로 구성된 '제2기 Win-Win 직업평가 마스터 팀'을 중심으로 내년 4월 말까지 직업평가가 필요한 특수학교(학급)와 재활기관의 장애인에 대상으로 직업능력평가 등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그동안 학과에서 직업평가 관련 이론 및 현장실습 교과과정과 직업평가사 자격취득지원 비교과 과정을 거쳐 재활상당과 직업능력평가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했다.

한편 우석대학교 재활상당학과는 지난 2006년 호남지역 최초로 설립된 재활전문인력 양성 학과로 장애인재활상당사와 직업능력평가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재활상당학과는 직업능력평가를 위한 다양한 평가도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바리스타·호텔리어·유틸리티·조향사·슈퍼마켓·임가공 직무 등의 상황 평가실을 갖추고 있다. /정은성 기자



고창경찰, 부처님 오신 날 대비 방법활동 강화

고창경찰서(서장 한도연)는 15일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앞두고 사찰 방문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범죄예방방진단팀(CFO)을 중심으로 특별 방법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에 전통사찰 8개소를 포함해서 총 34개의 사찰·안자를 대상으로 CFO가 현장으로 진출하여 취약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취약점에 대해 보안 사항을 권고했다.

또한, 방법 협력단체를 통한 합동 순찰 등 가시적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사찰을 탄력순찰 노선으로 지정해 주기적 순찰을 하고 있으며, 사찰 관련 긴급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위해 전 기능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했다.

한도연 서장은 "시설물 훼손, 화재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순찰과 형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평온한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성 기자

무주소방서, 부처님 오신 날 대비 특별경계근무

무주소방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연등 행사 등으로 화기 및 전기시설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전통사찰 6개소와 일반사찰 1개소를 대상으로 초기 대응 체계 강화와 소방 장비 100% 가동 유지 및 1일 2회 이상 예방순찰을 적극 실시 할 예정이다.

특히 무주군 적삼면에 위치한 전통사찰인 안국사에는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방력(펌프차량 1대, 소방공무원 3명) 전진 배치 등을 통해 긴급대응태세 확립과 선제적 재난 대비에 임할 계획이다.

무주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모든 현장대원은 기본 근무 및 경계근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평온한 부처님 오신 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소방서, 부처님 오신 날 대비 특별경계근무

남원소방서가 부처님 오신 날(15일)을 맞아 다양한 행사 개최에 따른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추고 산불 등 대형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부처님 오신 날은 연등 및 향초 등 화기 사용량이 증가되어 화재 위험성이 높고 춘향제 행사로 사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져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근무는 24시간 빈틈없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공무원 234명, 의용소방대 747명, 장비 41대를 동원해 비상출동 대기 상태에 돌입하며 각종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 대응태세를 갖춘다.

이철성 대응예방과장은 "한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문화유산이 잃지 않도록 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안전한 부처님 오신 날이 될 수 있도록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